

# 우리나라기술사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및 해외진출 방안

## The Strategy and The Plan for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our Professional Engineer's Qualification



글 | 정 병 선

(Jeong, Byung Seon)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력과장.  
E-mail : Jubys@mest.go.kr

### 기술사 육성 및 국제적 통용성 확보의 중요성

급속히 전개되는 글로벌화와 지식기반 경제의 확산에 따라 선진국 모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체 역량으로 창의적인 지식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수학, 과학에 대한 관심이 낮아져 가고 또한 우수인력들이 이공계로 진출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장래 우리나라의 국부 창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장래를 약속해 주지 못하는 사회적 여건일 것이다. 과학을 공부하는 청소년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had revised the 'The professional Engineers Act' in 2007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professional engineers.

The Ministry also had adopted "The International Professional Engineer Registration System which included APEC engineer and EMF international professional engineer and has worked on various MRA of professional engineers through FTA with USA, Singapore, EU, Canada and Australia etc.

The Ministry will participate in the negotiation meeting for MRA of professional engineers with Singapore in coming November and also will negotiate positively MRA of professional engineers with USA upon the ratification of National Assembly.

들은 과학자로서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연구를 하면서도 여유 있는 삶이 보장되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음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하며, 기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습득하는 기술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사회의 미래를 설계해 간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미래가 있어야 한다. 기술사야말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산업현장의 최고 자격자로서 기술사의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변호사처럼 독립적인 업무영역이 보장받게 될 때, 많은 우수 청소년들이 기술전공에 대한 희망을 갖

게 될 것이다.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술사 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고급기술자격의 국제통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기술사법을 개정하여 기술사 제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2008년 1월에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08~'10)"을 수립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본고는 여러 정책 중에서 "기술사의 국제통용성 제고"에 대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코자 한다.

### 기술사 자격의 국제 통용성 제고 정책 추진실적

우리나라의 기술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 나라의 기술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기술사들이 외국의 기술사들과 비교하여 능력 면에서 동등하거나 능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07년 1월 기술사법을 개정하여 기술사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술사는 3년 동안 90학점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함으로써 자기 역량을 계발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변화를 체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일부 기술사 중에서는 기술사의 독자적 업무영역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의무만 부담한다는 불만도 있을 수 있

으나, 먼저 기술사들이 전문성을 쌓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 점차적으로 전문적 업무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무르익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된 「기술사법」에 따라 지난 8월 22일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46호)을 관보에 고시하고, 우리나라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기술사를 본격 배출하기로 하였으며, '08.9.1부터 11.28까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기술사회에서 국제기술사 심사등록을 신청 받고 있다.

그 동안 국내 법률의 규정 없이 개별 부처차원에서 추진해 오던 APEC 엔지니어와 EMF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됨으로써 기술사법에 근거를 두고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증명서』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 기술사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한-미 FTA와 한-싱 FTA는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EU, 캐나다, 호주 등과의 FTA 체결 협상 등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사 자격이 국제적 표준에 부합됨을 보여줌으로써 국가 간 전문기술 인력의 교류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체계 정비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07.4.2 타결된 한-미 FTA(자유무역

협정) 협정과 '06.3 국회 비준으로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 협정에서 양국 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합의하고 우리나라 기술사들이 활발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FTA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한-미 FTA 기술사 상호인정 Working Group 회의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기술사회는 지난 7월 미국기술사회(NSPE, Na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 회장단과 캐나다 정부 및 기술사회 관계자를 만나 FTA 이행을 위한 협의 및 우리나라 기술사들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들은 미국 및 캐나다의 젊은 엔지니어 부족 상황을 설명하며 한-미, 한-캐나다 FTA와 관련, 우리나라 기술사(P.E, Professional Engineer)들의 미국 및 캐나다 현지진출에 대해 환영한다고 하면서 향후 양국 대표로 구성될 작업반(Working Group)에 적극 참여하여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번 한-미 Working Group 회의는 '08.7.26(토), 10:00 11:30 오리건주 포틀랜드시 힐튼호텔 Studio Suite룸에서 미국기술사회대표단 및 한국대표실무단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의 주요 의제는 (1)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라 기술사 상호

인정추진에 합의한 바, 한미 양국 기술사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실무작업반(WG) 구성·운영에 대비한 사전 조사 및 방안 모색, (2)향후 한국의 기술사 또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미국에 진출 가능성 협의, (3)미국 기술사관련 단체와의 장기적이고 유익한 유대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상호이해 제고 등이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기술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세 가지 경로를 확인하였다. 첫째, FTA를 통한 상호인정(MRA) 추진, 둘째는 APEC엔지니어 및 EMF IntPE 기준을 활용한 한-미(연방정부 또는 USCIEP\*, 주정부)간 Bilateral Agreement 추진, 다음으로 단기간 내에 진출할 방안으로서 미국의 기술사보(FE)시험 및 기술사시험 합격을 통한 한국 Engineer의 미국진출방안이다. 또 한 가지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와 기술사 상호인정을 추진할지라도 우리의 기술사들이 실제 미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미국 각 주정부에 기술사로 등록을 해야 함도 확인하였다.



한-미 WG 회의

\*USCIEP : The 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Engineering Practice (미국기술사회 및 시험위원회가 창설한 "미국 국제엔지니어링실행위원회")

이번 회의에 캐나다 측에서 정부관계자와 기술사회 관계자가 옵서버로 참석하였는데, 한-캐나다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캐나다의 경우 기술사 상호인정에 대하여 미국보다도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현재 캐나다에는 인력 부족으로 Technician과 Engineer의 이민을 권장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캐나다는 미국과 NAFTA 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각 주들의 독립성이 너무 강해 전 미국의 주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어 기술사 자격상호인정에 대해서는 몇 개의 개별 주 간에만 유효한 것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이 얘기는 한-캐나다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에는 고무적이거나, 미국의 경우 각 주의 참여도에 따라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이 활성화 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캐나다 회의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시에서 있었던 2008미국기술사회 연차총회에서 "한-미 기술사 상호인정"에 관한 회의에 참여하면서, 미국 각주의 기술사 대표, 캐나다, 일본, 브라질 등의 나라에서도 참여를 하여 기술사제도의 국제동향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향후 계획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11월에 있을 한-싱 FTA 이행위원회에 참여하여 양국간 기술사 상호인정(MRA)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미 FTA 기술사 상호인정도 양국 국회 비준이 완료되는 대로 양국 기술사회를 중심으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적극 협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간 기술사자격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도록 기술사의 자격요건 및 종목 개선, 공학인증 시스템 확립 등 국내 기술사제도 개선과 선진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술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기술사가 국가 최고 기술자격자로서의 위상이 견고해짐으로써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공계로 진출하고 또한 이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사로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APEC 회원국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길 바란다.

〈원고 접수일 2008년 10월 31일〉